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h2 style="text-align: center;">2.4(목) 10:30부터 보도가능</h2>	
---	---	--

작성부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 금융위원회 금융현장지원단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 금융투자협회 기획조사실 / 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 / 생명보험협회 기획부 / 손해보험협회 기획조정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책 임 자	김성조 현장점검팀장 (2156-8003)	담 당 자	박경덕 사무관 (2156-8004)	
	이성원 현장점검반 팀장 (3145-8855)		박석훈 사무관 (2156-8007)	
	홍영기 금융혁신국 부국장 (3145-8202)		장항필 선 임 (3145-8856)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실장 (2003-9030)		최은희 선 임 (3145-8635)	
	이인균 은행연합회 부장 (3705-5247)		박상철 차 장 (2003-9031)	
	강성규 생명보험협회 부장 (2262-6620)		박영상 팀 장 (3705-5231)	
	서영종 손해보험협회 부장 (3702-8530)		박순근 팀 장 (2262-6646)	
	최 현 여신금융협회 부장 (2011-0721)		김원신 팀 장 (3702-8660)	
배 포 일	2016.2.4.(목)	배 포 부 서	대변인실(2156-9543~48) 공보실 (3145-5789~92)	총10매

제 목 : 현장중심의 금융개혁 결과물 전파 및 활용성 확대를 위한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개최

- 금융개혁 과제를 새로운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업권별 토론회 실시

1. 「금융개혁 과제 사업화·상품화 토론회」 개요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2.4일(목) '15년도 현장점검 결과물*을 공유·전파하고 제도개선 사항 중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금융개혁과제의 사업화·상품화 토론회」를 개최

* '15년 ①회신과제 ②법령해석 ③비조치의견서 ④그림자규제 정비 자료집을 업권별(금융투자·은행·보험·비은행 총 4개 업권)로 토론회 현장 및 금융회사에 배포

- 토론회를 통해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금융개혁의 성과를 공유하고 구체적 결과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협력 방안 제시

■ 일시/장소 : 2015.2.4.(목) 10:30 ~ 17:00, 금융투자협회 3층 볼스홀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금융투자협회장, 현장점검반
- 업권별 토론패널(6명) : 금융당국 담당자, 민간전문가, 협회 및 금융회사 실무자
- 업권별 토론패널(약100명) :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신상품개발·사업기획 부문 실무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한 건의과제를 금융당국이 정책에 반영하고 홍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 금융회사의 사업화·상품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이 되어 소비자가 직접 이용하고 구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때 금융개혁은 완성되는 것임을 강조

-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신사업 창출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노력을 당부

-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새로운 노력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연결될 수 있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 새로운 사업화가 되기 위해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 분석하고 지원할 것임을 약속(별첨 :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참조)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금융당국의 금융개혁 현장점검이 수요자와 쌍방향 개혁이 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며,

- 동시에 금융회사도 치열한 고민과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자금공급의 매개체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여,

- 금융개혁 완수를 위해 금융당국의 노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

2. 토론회 주요내용

□ 각 업권별로 3파트(공유-발굴-토론 順) 진행 (업권별 1시간, 총 4시간)

시 간	해 당 업 권	비 고
10:30 ~ 10:45 ('15)	개회식	금융위원장, 금투협회장 인사말씀
10:45 ~ 11:45 ('60)	금융투자업권	금투협회 주관
13:30 ~ 14:30 ('60)	은행업권	은행연합회 주관
14:45 ~ 15:45 ('60)	보험업권	손보협회·생보협회 주관
16:00 ~ 17:00 ('60)	비은행업권(여신)	여전협회 주관

□ (1파트-공유) 현장건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그림자규제 정비 등을 통해 금융당국에서 정책에 반영하여 기 개선된 사례를 현장점검반이 제시

- 주요 대표사례에 대한 개선내용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선 노력이 전 금융회사로 전파되도록 독려

□ (2파트-발굴) '15년도 제도개선 사항 중 새롭게 사업화·상품화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각 협회에서 제시*

* 각 협회에서 제시한 주요 사업화·상품화 아이디어 사례는 붙임1 참조

- 5개 협회(금투, 은행연, 생보, 손보, 여신협회)는 '15년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신상품 개발, 사업영역확장 등의 구체적 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안

□ (3파트-토론) 발굴된 사업화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실현가능성 및 추가조치가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

-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당국·협회·금융회사 실무자 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패널로 참여 (토론회 참석자 명단은 붙임2 참조)

* 금융투자 : 박영규(성균관대 교수),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실장)
은행 : 고동원(성균관대 교수), 임형석(금융연구원 박사)
보험 : 이항석(성균관대 교수), 김석영(보험연구원 박사)
비은행 : 김상봉(한성대 교수), 이재연(금융연구원 박사)

- 업권별로 금융회사 준법감시인 및 신상품개발·사업기획부문 실무자들이 배석하여 제안내용을 소금융회사에 전파

3. 향후계획

□ 새로운 사업화를 통해 금융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향후에도 협회 주도의 정기적 토론회 개최가 필요

- 업권별로 현장점검을 통한 금융개혁 내용을 전파하고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매년 진행 추진
- 또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은 건의과제가 효율적으로 전파됨으로써 새로운 영역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회신내용을 업무유형별로 체계화*하여 공유할 계획

* 각 협회에서 금융회사에 전달시 현장점검반이 분류한 업무유형별로 (예) 은행 : 여신, 신탁, IT정보보안 등) 구분하여 각 금융회사 소관업무 담당자에게 전달

[붙 임 1] 업권별 사업화·상품화를 위한 제안 (예시)

[붙 임 2] 토론회 참석자 명단

[별 첨]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붙임 1 업권별 사업화·상품화 발굴을 위한 제안 (예시)

* 이하 자료는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업권별 협회(금투, 은행권, 생보, 손보, 여신)가 제안한 내용으로, 향후 추진과정에 추가적인 법령개정 수요 등이 발생할 수 있음.

1. 금융투자업권 사업화·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금융투자협회 담당자 (기획조사실)

이창화 실 장 (2003-9030)

박상철 차 장 (2003-9031)

① 정보교류 차단규제 합리화

* 현장건의: 1주차 현장방문 건의 → 일부수용 (추후 이해상충 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개편방안 마련)

* 진행경과: 금투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15.10) →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투업규정 입법예고('16.1월)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IB업무와 타 금융업무 간 경직적인 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업무영역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

* 정보제공 외 인적·물적교류 차단하여 효율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저해한다는 문제제기

⇒ 금융위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에 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해제('16.1월 입법예고)

* (정보교류 차단 예외 허용) (1) PF 자문, 주선 업무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에 재산의 9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 (2) 재산의 90% 이상을 기업 대출채권 매입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로 운용하는 펀드

□ (사업화 방안) 증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경영시 IB부서에서 프로젝트 금융 등의 자문·주선부터 투자자모집 및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One-stop 서비스 제공 (아래 그림 예시)



【기대효과】 증권사는 딜 주선 이후 펀드운용까지 수행하는 등 사후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책임 투자가 가능, 투자자는 전체 사업수행에 일괄 투자함으로써 보수절감 가능

② 증권회사 PF 대출에 대한 만기제한 폐지

* 현장건의: 24주차 현장방문 건의 → 수용

* 진행경과: 금투업 경쟁력강화방안 발표('15.10) 포함 →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16.1)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만기제한 규제(3개월, 금융투자업규정 §4-1조②)와 대부분의 PF 대출 필요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현실 간의 괴리

⇒ 증권회사 PF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을 폐지

□ (사업화 방안) 개발사업 초기자금(브릿지론*)의 필요한 기간에 맞게 증권회사가 다양한 만기의 PF대출 확대 가능

* 주로 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 시행사 운영비 등으로 소요(통상 1년 내외 만기)

【기대효과】 부동산, SOC 등 대규모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공급 원활화

③ 투자일임상품(랩어카운트) 다양화

* 현장건의: 1주차 현장방문 건의 → 법령회신 답변

* 진행경과: 법령회신을 통해 ETF 투자 명확화(15.4.24)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①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금전·증권, 재산의 대여 업무가 영위 가능한지*, ②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 ETF 투자가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대한 유권해석

⇒ 금융위는 관련 규정의 해석(법령해석 회신)을 통해 ①, ②가 가능함을 명확화

□ (사업화 방안) ①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일정한 수익을 추구하는 절대수익 추구형 랩 상품* 출시 ②ETF를 활용, Active이외 Passive 전략을 구사하는 글로벌 자산배분형 랩상품** 출시

* 국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채권을 담보로 한 통신키의 주식 투자 등으로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한 일정수익을 추구

** Active 형(기존상품: 해외주식) / Passive 형(신규상품: 해외상장ETF)

【기대효과】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다양한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공하고, 특히 절대수익 추구형·Passive형 랩상품은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④ 혼합자산펀드(자산배분 펀드) 허용

* 현장건의: 10주차 현장점검 건의 → 수용(기초지)

* 진행경과: 자산운용사는 언제든지 혼합자산펀드 설정 가능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한 펀드내에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형 자산배분 펀드 도입을 행정지도*로 제한

* 한 펀드내에 주식·채권 투자는 가능하나, 부동산·특별자산 등은 금지

⇒ 자산배분 펀드 가이드라인 폐지('14.12월, 금감원)

□ (사업화 방안) 현행 증권형 자산배분 펀드*외 혼합자산배분 펀드를 도입

* 자산배분 펀드(증권형) 설정원본(1.26일 기준): 7,845억원

【기대효과】 정보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자산배분 펀드를 통해 시장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포트폴리오 투자하여 종전보다 안정적 수익 수취 가능

2. 은행업권 사업화 · 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은행연합회 담당자 (기획조사부)

이인균 부 장 (3705-5247)

박영상 팀 장 (3705-5231)

① 온라인 · 모바일 실명확인 도입

* 법령해석: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실명확인을 '복수의 비대면 방식'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고객 실명확인시 창구직원이 직접 얼굴을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국민이 금융서비스 이용시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유권해석을 통해 복수의 방식을 통한 온라인 · 모바일 실명확인을 허용('15.12월)

(이중확인: 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 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 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 (사업화 방안) 온라인 · 모바일 실명확인 적용범위를 신규 계좌개설 외에 외화송금, 공인인증서 발급, 거래한도 상향 등 전반적인 금융거래로 확대 하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대효과】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을 접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 핀테크를 통한 은행간 경쟁과 혁신이 보다 강화되어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 가속화

②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 법령해석: 「은행법」에 따라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를 최대한 탄력적으로 해석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은행의 겸영업무가 열거식으로 규제됨에 따라 새로운 금융업무 영역의 영업·서비스 개발유인을 저해

⇒ 「은행법」 유권해석을 통해 은행이 영위 가능한 부수업무의 범위를 고유 업무에 부수하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 자산 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15.8월)

□ (사업화 방안) 상표권(예: 캐릭터, 브랜드명) 사용료 수취, 온라인 채널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수익성 강화

【기대효과】 SNS·문화행사와의 연계 마케팅을 통해 은행 이미지 제고, 은행의 인적·물적 자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고객 기반 및 수수료 수익 확대

③ 오픈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 법령해석: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 제공동의시 포괄동의 및 전자문서 방식 허용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본인의 거래정보를 제공 하는 경우에도 매번 서면동의를 받도록 제약

⇒ 「금융실명법」 유권해석을 통해 정보제공 동의시 건별이 아닌 포괄동의 (일정요건 충족시 1~5년간 유효), 서면이 아닌 전자문서 방식을 허용('15.12월)

□ (사업화 방안) 핀테크 기업이 은행계좌 잔고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기대효과】 은행은 핀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편리하게 통합 관리

3. 보험업권 사업화 · 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생명보험협회 담당자 (기획부)

강성규 부 장 (2262-6620)

박순근 팀 장 (2262-6646)

손해보험협회 담당자 (기획조정부)

서영종 부 장 (3702-8530)

김원신 팀 장 (3702-8660)

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 현장건의: 1주차 현장방문 건의 → 수용

* 진행경과: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15.12) → 개정 시행('16.4월)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온라인상 본인의사 확인수단이 다양화되었음에도, 온라인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 체결의사 확인, 모집인 설명의무 이행 여부 확인 등에서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제 잔존

⇒ 반드시 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를 이용하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화 방안) 온라인·모바일 전용 보험상품 출시 등 상품을 다양화 하고, 보험가입 · 보험계약대출 등 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확대

○ 온라인 보험가입 편의성 제고로 온라인전용(CM)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가 향후 1.2兆원('15년)에서 2兆원('16년)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

【기대효과】 인터넷 등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 도입으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및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를 통한 One-stop Shopping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여

② 단종손해보험대리점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 * 현장건의: 5-10-11주차 현장방문 건의 → 수용
- * 진행경과: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입법예고('15.12) → 개정 시행('16.4월)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자격시험 면제, 이수 교육시간 완화 이외에는 기존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업실적 미진

⇒ 임직원의 10% 이상 설계사 등록요건 적용면제, 여행업자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 자동차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해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 진입·영업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기타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보험상품 가입 프로세스 간소화 필요성 인정

□ (사업화 방안) 소비자들의 니즈에 부응한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新소액보험 판매채널로서 특화된 새로운 비즈 모델 창출 (대형마트의 가전제품 수리보증 연장 등)

【기대효과】 진입장벽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보험사는 단종손해보험대리점 진입을 활성화 할 수 있고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 제공 기대

③ 무해약환급금(또는 저해약환급금) 보험상품을 종신보험까지 확대

- * 현장건의: 5주차 현장방문 건의 → 수용
- * 진행경과: 개정안 입법예고('15.5)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15.7월)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고령화에 따라 평균수명이 증가하여 사망(종신)보험의 중요성과 소비자의 니즈가 확대되고 있으나, 저금리 등으로 인해 사망(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상승하여 소비자 부담이 가중

⇒ 해약시 환급금이 낮으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보험상품 설계기준을 모든 보장성보험으로 확대하여 모든 사망(종신)보험이 적용 가능

□ (사업화 방안) 저해약환급금 상품인 '용감한 ○○○ 종신보험'과 같이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보장성 상품 개발

구분		기대효과 (00생명) (상품출시 후 3개월 실적만 반영)
실적	가입자수 기준	1만 7,900건
	월납 보험료 기준	35억원
소비자 편익 증대 (총 보험료 인하 추정)		약 3,240억원 (평균가입연령 40세, 평균 가입기간 30년 가정시)

※ '15.11월부터 00생명 외 타사도 동종상품 판매가 가능('15.7~10월, 00생명의 배타적 사용권 인정)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무(저)해약 종신보험 확산을 기대

【기대효과】 소비자는 환급금이 낮은 반면에 보험료가 낮은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선택권이 확대되고, 보험사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통한 신규수요 창출 기대

4. 비은행업권 사업화 · 상품화 발굴 주요 내용 [예시]

여신전문금융협회 담당자 (종합기획부)	
최현부장 (2011-0721)	김정연팀장 (2011-0755)

① 자발적 온라인 카드 신청시 경제적 이익 제공 완화

- * 현장건의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패자부활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용('15.12월)
- * 진행경과 : '16년 하반기 여전법 시행령 개정 추진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여전법은 카드 모집 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연회비의 10%로 제한하고 있어 온라인 모집채널 활성화에 한계

⇒ 온라인에 한해 경제적 이익한도 규제 완화 추진 ('16년 하반기시행령 개정추진)

□ (사업화 방안) 상품가입 뿐 아니라 상담신청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대면채널의 서비스 수준을 뛰어넘는 고품질의 다이렉트 상품 출시*

* 온라인 채널은 모집인 운영 관련비용(모집수당 등 모집비용 약 18만원 수준)을 절감 가능

【기대효과】 ①소비자 선택 기회 및 편의 증대 ②모집인에 의한 정보유출 위험 방지 기대 ③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카드발급 유도로 건전한 카드발급 문화 정착 등

②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관련 규제 완화

- * 현장건의
 - 1) 재산관련 의제소득 확인서류에 재산세과세증명 포함
 - 2주차 현장방문 건의→ 수용
 -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정기적 점검 시 우량회원에 대한 점검대상 제외
 -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패자부활전) 결과에 따라 최종 수용('15.12월)
- * 진행경과 : 여전법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개정 추진 예정

□ (舊 문제점 및 조치사항) 신용카드 발급 관련 의제소득 산정 시 모범규준의 '객관적 시세 확인 가능서류' 제한 및 우량회원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따른 고객 불편 초래

⇒ 여전법 감독규정 및 신용카드 발급 및 모범규준 기준 개정 추진

□ (사업화 방안) 연소득 증빙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틈새 카드 고객군을 발굴하고, 우량회원을 정기적 점검에서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제출 등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기대효과】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 규제 완화로 소비자 만족도 증가 및 합리적인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

붙임 2 토론회 참석자 명단			
업권	1파트 (발표)	2파트 (발표)	3파트 (토론)
금투	박학순 팀장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이창화 실장 (금투협회)	(진행) 김철배(금투협회 전무) (패널) 이형주(금융위 자본시장과장), 허선호(대우증권 본부장), 김용광(삼성자산운용 본부장), 박영규(성균관대 교수),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실장)
은행	장항필 선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박영상 팀장 (은행연합회)	(진행) 홍건기(은행연합회 상무), (패널) 이윤수(금융위 은행과장), 이성원(현장점검반 팀장), 한동환(국민은행 부장), 권준석(신한은행 부장), 고 동 원(성균관대 교수), 임형석(금융연구원 박사)
보험	채희성 팀장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서영중 부장 (손보험회) 신영선 부장 (생보험회)	(진행) 이재구(손보험회 본부장) (패널) 이동훈(금융위 보험과장), 채희성(현장점검반 팀장), 문원주(삼성화재 부장), 권오광(교보생명 부장), 이향 석(성균관대 교수), 김석영(보험연구원 박사)
비은행	전부일 수석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이효찬 실장 (여전협회 연구소)	(진행) 박성업(여전협회 본부장) (패널) 신진창(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이재학(현장점검반 팀장), 채병서(현대캐피탈 이사), 박형근(하나카드 팀장), 이 재 연(금융연구원 박사), 김상봉(한성대 교수)